

‘생명나눔’ 열풍 분다

법장 스님 법구 기증 사회적 반향... 400여명 동참, 계속 확산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사진)의 법구가 종립 중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된 후 ‘생명나눔’ 열풍이 불고 있다.



기증을 계기로 승가정신을 되찾고 종교가 화합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법장 스님 원적 후 조계사 앞마당에서 장기기증 서약 동참 장구를 개설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 324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법장은 생전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역임하며 난치병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장기기증운동을 이끌었다. 스님은 지난 1994년 3월 24일 누구보다 먼저 사후에 각막, 장기, 시신을 기증하기로 서약했다.

하지만 스님 서약이 그대로 이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문도스님들이 '불경스럽다'며 반대를 했던 것이다. 문도들과 장의위원회는 수차례 숙의를 거쳐 법장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스님의 실천행을 완성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종정 법전 스님의 하교가 결정적이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교, 문중을 대표한 수경, 장의위원회를 대표한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12일 법전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성직자는 공인하므로 사회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장 총무원장의 법구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법장 스님의 법구는 12일 오후 3시 30분 경 간단한 이운의식을 거친 뒤 중국대 일산병원으로 이운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부터 정형외과 태석기, 흉부외과 김응중, 병리과 박상신, 진단검사의학과 채재래 교수 등이 법구를 부검하기 시작했다.

스님의 법구를 부검한 '인곡당 총무원장 법신 수증 위원회'는 "부검 결과 뼈는 이식이 가능하지만 각막은 6시간이 지났고 심장판막도 부패되어 있어 스님의 생전 뜻대로 이식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식이 가능한 뼈는 병원의 골 은행(Bone Bank)에 보관

해 필요한 분들께 기증할 것이며, 법신은 의학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용으로 영구히 보존해 후학 양성에 밑거름이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장 스님 법구 시신 소식이 알려지자 기확실장 법안, 문화부장 박연, 불교신문 주간 정법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과 김태동 前 청와대불자회장 등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15일 수덕사에서 봉행된 단후재 후 살장·수경 스님 등 문도들도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장 스님 원적 이후 장기기증 열풍에 동참한 사람은 4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계에선 큰스님이 입적하면 대비를 하는 것이 전통 관행이었다. 대비한 뒤 나오는 사리로 큰스님 잣대를 재기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법장 스님 법구 기증을 계기로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장례문화의 새로운 변화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곡당 법장 대종사 종단장 장의위원회는 "평생을 생명운동에 매진해왔던 법장 스님 법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씨가 되고, 우리 사회 내에서 보다 광범위한 생명나눔운동으로 활성화 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남동우·유철주·김강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영결식이 9월 15일 조계사에서 3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스님이 법구를 기증함에 따라 다비식 없는 최초의 종단장으로 거행됐다.

법장 대종사 11일 원적

15일 조계사에서 종단장, 3만여명 애도
대종사·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仁谷)당 법장(法長) 대종사가 9월 11일 오전 3시 50분 경 원적에 들었다. 세수 64세, 법랍 45년.

관련기사 2·3·4·15면
조계종은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스님께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종단 발전에 진력하고자 신병을 치료하던 중 열반에 드셨다"며 "전 종도와 더불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장 대종사는 11일 새벽 입적하기 전 시자 진광 스님 요청에 따라 평소 대중 법문 때 마다 신도들에게 즐겨 말씀했던 "나에게 바람이 하나 있는데(我有一鉢囊) 입도 없고 밑도 없다(無口亦無底) 답아도 답아도 넘치지 않고(受受而不濫) 주어도 주어도 비지 않는다(出出而不空)"는 글귀를 시자스님 노트 뒷장에 친필로 남겼다.

빈소는 조계사 대웅전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별로 설치됐다. 외국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김병준 정책실장이 조문을 오는 등 수많은 사부대중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고인의 투철한 애종심과 활발한 사회 활동 등을 기려 종단에서는 대종사 법계를 폄소했으며, 정부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영결식은 1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법장대종사종단장(葬)'으로 거행됐다. 고인의 생전 서약에 따라 법구가 종립 중국대 일산병원에 기증됨에 따라 종단장 최초로 다비식 없이 엄수됐다.

3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영결식에서 장의위원회 위원장 현교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의 원력으로 인해 종단의 위상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불교발전의 기틀이 마련돼 가고 있었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부의장 보성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단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고 원용과 화합으로 종풍을 드

높이고 불교가 전승한 법등을 빛내기 위해 정진하던 그 모습이 산승의 눈에도 밝힌다"고 추모했다.

이 외에도 윤주사 주지 정락, 전국 선원수좌회 대표 해국, 전국 비구니회 회장 명성,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권한대행 등 불교계와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등 정관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조사를 남겼다.

2면으로 이어짐

법장 스님, 보험금 나눔운동 1호

보험료 1천만원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 원적으로 발생한 보험금 전액이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법장 스님은 2004년 4월 23일 녹십자 생명의 '자비보시보험'에 가입

했다. 이 보험은 조계종 대형회사인 KBLP(Korea Buddhist Life Planning, 대표이사 강정기)와 녹십자생명이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진행한 '자비'의 보험금 나눔운동'의 한 상품.

법장 스님은 보험 계약시 매월 10

여만 원을 보험금으로 납입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법장 스님 원적으로 1000만원의 보험금이 사회복지재단으로 지급돼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법장 스님은 생전 '종단 안정과 수행 풍토 조성'을 위해 자비의 보험금 나눔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 운동을 바탕으로 의료요양시설을 갖춘 기거센터(실버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남동우 기자

호외발행 법장 대종사 원적 속보를 알리기 위해 9월 12일자로 호외를 발행했습니다. | 추석 연휴관계로 지역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율장정신'
법주 : 각국 스님(9월 24일 오후 3시)

‘할’

이봐, 잠이든 너를
불러내지 마지마

아니다
뭐

가슴하면 청정
종자(淸淨種子)도 끊겨...

그림·조태호
철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지금까지 이런 천화는 없었다"
묵연스님의 선화 전시회 및
묵연스님의 시화 명상집 출판 기념회

불교TV "시가 있는 찾침"과 "시와 사랑"에 출연하여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바로 그 묵연스님이 170명의 대 전시관에서 첫 전시회를 가집니다.

길이 5cm, 지름 8mm의 오직 한 붓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선에서부터 다른 모든 선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묵연스님의 독보적 기법은 선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오묘한 자신의 내면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 장소 : 갤러리 라메르 (인사동 사거리에서 공평아트 방향 중간에 위치)
- 일시 : 2005년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2005년 10월 11일 오전 12시까지
- 문의 : 011-9366-1129

붓으로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필휘지의 일원상